

사업팀 현)팀원들이 말하는 팩트 체크!

안녕하세요. 예비 사업팀 팀원 여러분!

디캠프/프론트원 사업팀은 7명의 팀원과 3명의 인턴이 함께 하고 있어요.

조직 문화, 팀 문화를 알기에 공고문 내 직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 업무에 임하고 있는 팀원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셨으면 해요.

나도 지원 전에 이게 궁금했다. 실제 현 팀원들이 말하는 팩트 체크!

인터뷰 참여자

 사개드래곤 (하지만 순둥이)

 실버자석 (5060 아이돌)

 달려라지니 (닉네임을 너무 대충 지음)

 소금아이언공 (이름 그자체)

-인턴즈-

 도봉구아리 (아따맘마 아리 아님)

 동탄미도링 (전미도님 제송합니다)

 송파구빈지노 (빈지노님 보고싶어요)

Q1. 사업팀? 무슨 사업을 하나요?

뭐지.. 사업팀..뭐지...? 처음에 저도 이름을 접했을 때 그랬어요. 사업팀은 크게 아래 세가지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일

대외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에 유관한 자원을 유치하는 일

파급력 있는 문화 확산 활동을 선별하여 집중하는 일

다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궁무진 하겠죠!

팀원들은 각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실버자석

- 저는 지역 연계 사업과 대외 협력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과 협력할지 어떤 대상과 협력할지의 기준은 “패밀리사의 성장” 에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어떠한 대상이라도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면 적.극 유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달려라지니

- 꿈꾸는 스타트업을 디데이 무대에 데뷔시킵니다! 또한 우수한 잠재 인력들이 스타트업계에 진입하여 업계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학 등 외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소금아이언공

- 대학 커뮤니티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대학과의 네트워크에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 창업의 꿈을 꾸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디데이 또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Q2. 사업팀 채용 프로세스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이것만은 꼭!!인 부분이 있나요? (인재상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개드래곤

- 다양한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체력, 시간 등 리소스 배분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다면? 누구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 짜증과 불만, 그만하고 싶다는 포기 유혹은 어느 직장인과 같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기운을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하는 팀원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넘어가자” 는 절대 아니지만 발전적인 인터랙션은 하되, 감정적으로 상처주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 그 무엇보다 창업가에 대한 존경이 기본이었으면 해요. 사업의 진척단계가, 준비정도가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사업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이 더해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발전적인 코멘트를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해요. “아..이 사업은 별론데?” 라고 코멘트를 주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나더라구요. (씩씩) 이에 앞서 창업가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본인의 견해/의견과 코멘트가 정답이 아님을 알고 있는 분 이기를 희망합니다.

실버자석

-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역량의 예시로는 남 설득하는데에 자신있다! or 성격유형 검사에 '조력자' '중재자' 키워드가 나온적 있다면 해당 직무를 추천 드립니다!

달려라지니

-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요.
- 스스로 일과 사업에 대한 욕심과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셀프모티베이션 또한 사업개발팀에서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요.

Q3. 실제 업무 진행하시면서 불만 / 단점은 없었나요? 이런 분이라면 서로 힘들 수 있어요....하는 게 있을까요?

사개드래곤

- 저도 아주 가끔씩은(사실... 매일?) 마음이 조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는 루틴한 일도 물론 있지만 사업개발팀의 과업은 건수, 가짓수가 많기도 하고 외부와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일이 종종 생겨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바꿔서 설득도 해보고 배팅도 해보고 시도하는 전략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레슨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실버자석

- 사업 추진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고정 업무 이외 비상시 업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유연함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저도 힘들게 적응중입니다. 함께 화이팅 하실 분!! 기다리겠습니다.

달려라지니

- 워낙 다양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발생하기 때문에 팀원들 또한 멀티플레이어로 일을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디데이를 진행할 때는 행사장 세팅부터 팀들의 발표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해야하기에 '난 이 것만 잘 할거야!' 라는 마인드 보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사업, 협력 파트너사 등등)을 계속 발굴하고, 창조해가는 팀이에요. 가끔은 굳어버린 것만 같은 저의 사고를 자책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고, 또 보완해나가는 분이라면 아주 행복한 회사생활 하실 수 있을거예요!

🌿소금아이언공

-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후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시간이 들어 사전에 빠르게 리서치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은 좋게 이야기 하겠지 뭐! 하신다면,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는 디캠프 아리, 미도링 그리고 송파구빈지노의 말을 들어보세요! 관찰자 시점으로 공유드립니다.

Q4-1. 우리가 본 사업팀 이건 정말 좋다!

😊도봉구아리

- 정말 다양한 업무를 **A to Z** 경험해볼 수 있어요. 아주 초기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큰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업무의 주기가 빠른 편이라 성취감을 자주 느끼며 일할 수 있어요. 또 여러 매니저님, 인턴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실행해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일이 쉽진 않지만, 항상 사람들과 함께 새롭고 즐거운 방향을 탐구하는 곳이기때문에 들어오신다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 톨 천재 트렌드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디캠프에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곳이에요. 여러 핫한 주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다뤄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마음속 개그 열망도 마구 펼쳐볼 수 있죠. 밈, 유행어 모두 사용 가능! 오히려 좋아! - 사업팀 인턴즈 (a.k.a 개그동아리)

👉동탄미도링

-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잡 디스크립션이나 자소서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그 단어', 커뮤니케이션! 저는 사업팀에 들어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정확히 정의내리긴 어렵지만요. 디데이 하나에만도 대표님들, 영상팀, 공간

조성팀, 청중분들 ... 디캠프 안팎의 너무나 많은 분들과 협의점을 찾고, 결과물을 일궈내야 해요. 그 가운데서 디데이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척척 일을 진행시키려면, 깔끔하면서도 따뜻따뜻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더라고요. 컴케의 달인 팀장님과 매니저님들, 인턴 동기님들께 정말 많이 배워간 부분이었습니다.

- 사업팀 때문에 배꼽 달아나서 맨날 하이웨스트만 입는 썰폰다_

제가 생각하는 사업팀의 최고 장점은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이 환영받는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회의도, 프로그램도 1도 고리타분하지 않고, 늘 새롭고 재미투성이었어요. '지루하면 어쩌지?' - 회의 때마다 나왔던 단골 고민거리였는데요, 회의하면서 깔깔대며 웃느라 혼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회식할 때는 더 재밌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수평선을 찾는다면 사업팀을 보라!

Ggondae? 수직적? 그게 뭐죠? 인턴의 말 한마디도 귀담아 들어주시는 매니저님들 덕분에 사업팀은 자존감 뽐뽐 회사생활 가능한 곳이에요. 대표님들과의 만남이나 외부 미팅에서 자신감 넘치게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업팀의 수평적인 분위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 송파구빈지노

- 나이스한 직원들과 파이팅 넘치는 팀의 분위기!

다들 정말 일처리가 확실하시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어요.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잘되고 성공할지를 늘 고민하는 곳이기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몸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관련 업계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몽글함은 정말 돈주고도 살 수 없답니다 ^__^

- '탈인턴'스러운 업무

인턴이라고 편한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XXXX. '내가 이것 혼자 해도 되나?' 싶은 책임감 뽐뽐한 업무들을 전부 맡게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기획 및 운영까지. 팀장님/매니저님들의 서포트를 받으며, 정말 주도적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속에서 스스로 정말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많죠. 제가 구상했던 콘텐츠가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나중에 취업 때도 요긴하겠죠?)

- 명륜진사갈비 뽐치는 무한 음식 리필

정말 먹을 것에 자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 입사 첫날부터 각종 기프티콘 세례와 점심

약속, 랜선 회식 등 배가 고플 날이 잘 없게 됩니다... 커피도 정말 자주시고, 탕비실에도 든든한 간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 디캠프에 와서 살이 3kg는 찐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각종 먹을 것들로 체력을 보충하다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Q4-2. 사업팀 이건 좀.....?

도봉구아리

-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항상 재밌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다보니 아이디어션은 정말 많은데 그만큼 많은 기획이 좌절되는 곳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놓쳤나? 하는 아쉬움 섞인 자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 속에 배움이 있다는 것! 오히려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찢잘싸를 외치며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 나갈 수 있겠죠? Maybe...? (저는 아직 수련 중,,,,,,)

동탄미도링

- ‘사업팀 오늘도 바빠여?(나랑 티타임하자)’ - 나왔다. 타팀 인턴의 순박하고 잔혹한 질문 -
팀 특성상 파트너사와 프로그램이 많고, 또 인턴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시는 만큼 업무량이 적지는 않아요. 사실 매니저님들에 비하면 업무량이 많다고 하기에 도워하지만요..! 초반 적응기, 주어지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허둥지둥 보고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때가 기억나요. 타팀 인턴에 비해서 조금 더 바쁠 수 있지만, 하나의 일이 많다가보단, 늘 새로운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1. 일상이 지루하지 않음 2. 다양한 일을 경험해볼 수 있음 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송파구빈지노

- 창작의 고뇌, 끝없는 절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만큼, 말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업무 진행 상황, 전체적인 무드에 맞게 행사를 기획해야하니까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팀원들+인턴 동기들과 힘을 합쳐 으쌰으쌰하다보면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유에서 풀소유까지 사업팀이 도와드릴게요!!

(끝)

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